



재외동포청,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착지원 사업 최초 추진

- 2025년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2개 광역·기초단체 13개 사업 지원 -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‘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’ 보조사업자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13개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.
- 금년도 지자체 보조사업 공모에는 13개 광역·기초 단체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하였고, 이중 동포 밀집 지역인 광주광역시, 안산시 등을 포함한 12개 광역·기초 단체의 13개의 사업이 선정됐다.
- 금번 사업 선정에는 ▲실질적인 지원효과 ▲사회적·정서적 적응 지원 여부 ▲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식개선 ▲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여부 ▲지역별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.
- 최근 국내 체류 동포가 약 86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2023.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이다.
- 금번 사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재외동포청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.
- 또한,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재외동포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금번 협업 사업 추진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 고 하면서 “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□ 한편,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차원에서 1.15.(수)-2.7.(금) 간 민간 단체 지원을 위한 ‘2025년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’ 을 공모 중이며, 2월초에는 ‘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’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과 장	변현정	032-585-3179
		담당자	주무관	김성환	032-585-3189